

찬 송

569장(선한 목자되신 우리 주)

- 1. 선한목자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 주소서
선한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 2. 양의 문이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 3.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언게 하소서
선한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 갑니다 선한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 4.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 가게 하소서
선한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 하소서 선한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대 표 기 도

성 경 봉 독

사무엘상 17:45-49(구약 437쪽)

- 45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 46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 47 또 여호와와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 48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 49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할렐루야! 명절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선조들의 신앙을 기억하면서 기쁨이 충만한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고 불립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사실상 종료되고 우리의 일상은 안정화를 되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세계 곳곳에서는 전쟁이 그치지 않고 경제와 정치는 불안정합니다. 수많은 가치관과 거짓 진리가 우리를 흔들려고 합니다. 마치 목자 없이 방황하는 양들 처럼 헤매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참된 목자이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간다면 삶의 목적과 종착지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가정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첫째, 다윗처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다윗과 골리앗이 등장합니다. 골리앗은 몸집이 거대하고 오만불손한 사람입니다. 그에 비해 다윗은 이새의 여러 아들 중 한 명이며, 천하게 여겨지던 목동이자 보잘것없는 소년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둘이 싸움을 하고, 결과는 다윗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하나님의 손에 승패가 달려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용기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그는 베들레헴의 들판에서 양 떼를 돌보며 하나님의 강력하신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다윗이 홀로 서 있던 들판은 실패의 자리가 아닌 능력의 자리였습니다. 그는 맹수들이 양을 물어가면 오히려 싸워 이겨서 다시 양을 구해오는 진정한 목자였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언제나 다윗과 함께 하시기에 가능했습니다. 다윗은 빈 들에서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은혜가 곧 일상이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홀로 지켜내야 할 빈 들의 자리와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빈 들에서 만나는 문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아래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와 어려움을 이미 아시고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압도당하면 골리앗은 더 이상 문제가 아닙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모든 문제를 하나님 은혜 아래 둘 수 있는 우리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4

설명절 감사예배

둘째, 다윗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무기를 선택하는 우리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울 왕은 전쟁에 나가는 다윗에게 자신의 갑옷과 무기를 내어줍니다. 왕의 무기를 갖추는 것만으로도 가문의 영광이었지만, 다윗은 자신과 맞지 않는 무기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합니다. 바로 물맷돌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는 그동안 물맷돌로 맹수들과 싸워 이겼습니다. 다윗은 물매와 돌맹이 몇 개로도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뜻과 비전을 바로 알아야 문제 앞에서 나에게 맞는 무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문제를 해결할 능력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맞는 무기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다고 우리를 속이는 가짜 무기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다윗이 시냇가로 가서 돌을 고르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골리앗을 뒤로하고 무릎을 꿇어 돌을 고르는 다윗은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다윗의 선택에 후회는 없습니다. 그는 골리앗이라는 문제를 향해 하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고 용감하게 뛰어갔습니다. 그 결과, 문제는 다윗 앞에서 무참히 쓰러지고, 다윗은 그를 밟고 올라가 온전히 승리하였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의 강력하신 은혜가 일상이 되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인생 중에 만나는 광야에서 승리할 수 있는 무기는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돌을 고르십시오. 다윗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에 넉넉히 선포하는 우리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 송 310장(아 하나님의 은혜로) 다 같이

1.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2.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도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3.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후렴)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 해주실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기도문

다 같이